



한국인의 시각으로 마야문명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마야》 쓴 송영복 교수

졸업 평점 2.0이 안 되는 한 학생이 있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학생운동을 한 탓이었다. ‘억압 없는 사회.’ 젊은 날의 그가 꿈꿔온 이상이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가만 누워 꿈만 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역사공부를 하고 싶었다. 역사 중에서도 비주류의 역사, 잊혀진 고대문명을 탐구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마야를 공부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

운동을 해온 탓에 비주류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스페인어를 전공하기도 해서 ‘그럼 마야문명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멕시코 외무부 장학생으로 뽑혀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송영복(42·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 교수의 ‘운명’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 모르는 것을 내 방식대로 찾아가고 해석해 가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희열을 느꼈다.

“전통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서양인이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양인이 느낀 것을 무가치 하디거나,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공존할 때 비로소 하나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이나 마야의 원주민만 마야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마야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계화, 세계화’ 그러는데 진정한 세계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 길에서 만난 라틴아메리카

멕시코에 거주한 7년 반 동안 송 교수를 가르친 것은 강의 실이나 책이 아니라 여행이었다. 가난에 찌든 원주민들과 반군들, 게릴라들에게 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우범지역을 밤 12시가 넘어 배회하기도 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송 교수는 무전여행을 통해 체 게바라가 20대 초반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하며 느꼈던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 히치하이킹해서 파나마를 가는 길이었습니 다. 날이 어두워지고 차는 잡히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군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습니다. 제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군요. 그 이후로도 두 번 더 그 아저씨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한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도 했었죠.”

송 교수의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6·25전쟁을 겪고 꿀꿀이죽도 먹어본 어머니였지만 풀로 엮은 지붕 아래 흠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내왔을 음식도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멕시코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1,000미터 달리기라고 치면 남들은 이미 200미터 300미터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야 출발한 꼴이었다. 기본적으로 메소아메리카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마야어, 라우



· 청바지와 후드점퍼, 송 교수가 즐겨입는 복장이다.
당장이라도 마야로 달려가고 싶은 그의 마음이기도 하다.

와뚜르어 등 배워야 할 언어도 많았다. ‘과연 내가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 석사학위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그야말로 ‘위기의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석사학위 심사였다. 마야에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논문 〈고대 마야의 노예, 노비 제도 Esclavitud y servidumbre entre los mayas prehispánico〉를 교수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실 그의 주장은 그동안 마야가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는 학계의 정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교수들은 왜 자꾸 한국인의 시각으로 마야를 보느냐며 시각을 바꿀 것을 채근했다. 하지만 송 교수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 학계의 무지와 왜곡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비, 수수께끼, 의문 등과 같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여전히 마야 역사의 주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침략으로 마야문명이 철저하게 파괴돼 학자들이 연구할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개인주의적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후배 관계의 끈끈함을 단순히 명령과 복종 그리고 착취와 순종의 역학관계로 이해하는 식이죠.”

결국 송 교수의 논문은 2년 만에 통과될 수 있었다. 교수들

의 입장은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논의전개 과정만큼은 받아들여줬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송 교수 역시 많은 부분 양보해야 했지만 마야문명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 또 다른 정복자 한국(?)

송 교수는 이후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교수양성장학금을 받으며 마야연구소 준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유카탄주 꼬마 유적지와 메시코주 히코, 떼오투우아칸 유적지 등의 답사와 발굴에 직접 참여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마야사회의 역동성 : 고대 마야 후기고전기의 사회조직에 있어서의 가족체제의 역할〉이란 논문으로 메소아메리카학 박사를 받았다.

“마야 원주민들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백인들은 한쪽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원주민 아이들은 굶주립니다. 현재와 같이 전통을 고수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가난 때문입니다. 저 역시 빈부의 격차를 100퍼센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자가 약자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92년 이후 마야의 역사는 그 땅의 주인인 마야인의 역사가 아니라 백인을 위한 인종차별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송 교수는 《마야》에 이어 원주민의 시각에서 그들의 역사와 현실을 바라본 《라틴아메리카》(가제)를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탓에 진정한 라틴아메리카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도 원주민들을 이교도로 규정하고 마야의 책을 불사른 장본인이기도 한 에스파냐의 신부 프라이 디에고 데 란다가 쓴 《란다의 마야이야기》(아이러니하게도 마야 원주민이 쓴 책으로는 꼬디세 빠리, 꼬디세 마드리드, 꼬디세 드레스테 등 단 세 권만이 전해 내려오는 상황에서 마야문명의 파괴에 앞장서 온 란다의 책은 마야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되어 있다), 마야루트 여행안내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칠레와 FTA가 체결되는 등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50퍼센트가 중남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럽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다른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멕시코에서는 한국인들의 횡포가 TV프로에 시리즈로 방영된 적이 있고, 한국 기업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횡포가 인류학회 보고서로 발표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라틴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인과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